



## 이기적인 엄마?

배원열 / KBS 보도국 뉴스투데이 PD

**방** 송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들어서서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일이었나? 결혼기념일? 딸 수인이 생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평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다가도, 한번 폭발하면 걸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는 터라, 피곤한 데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다.

눈치만 슬금슬금 보면서 밥그릇을 반쯤 비웠을 때, 불쑥 한마디 툭 했다.

“치, 그 여의사 왜 말을 그렇게 하나?”

아하, 감이 잡혔다.

난 그날 뉴스에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해마다 줄고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분유를 먹인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했던 이대 동대문병원 소아과 이근 선생님이 “분유먹이는 엄마는 아기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엄마다”는 요지의 말을 했던 것이다.

그 “이기적이다”는 말이 자존심 강한 아내의 신경을 건드렸던 모양이다.

심상치않은 분위기에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7살난 딸 수인이. 수인이는 분유로 키웠었다.

딱히 아내가 자신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엄마’ 여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첫아이라 유난히도 산고가 심했지만 유독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그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유를 먹이는 문제에 있어선, 하루 이틀 모유가 안 나오자 너무 쉽게 분유를 선택했고 그 이유를 아직도 난 모르겠다. 자연분만을 고집한 만큼 모유도 끝까지 먹이려고 했을 것 같았는데...

이제와 생각컨데, 신문과 방송을 도배질한 분유광고 때문이 아니었을까?

수인이가 태어나던 95년이 분유수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때였고, 그때 한국의 대부분의 산모들은 특정성분(이를테면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한다는)을 강조한 분유회사의 무차별적인 광고 폭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 상황에서 몇 번의 모유시도끝에 별 저항감 없이 분유를 선택했던 그녀에게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다소 억울하게 들렸을 법하다.

우리나라 산모들의 모유먹이는 비율은 85년 59%에서 2000년 10%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반면 분유먹이는 비율은 85년 16%에서 지난해 25%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이 배운 산모일수록 분유먹이는 비율은 높아서 모유 먹이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모유 먹이기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계층은 많이 배운 산모들이었다는데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쪽의 모유먹이는 비율은 75%이상이라는데, 외국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이 이 좋은 것은 왜 따라하지 않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날마다 방송하면서 가끔 절망적일 때가 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좋았다.

아내가 다음에 태어날 둘째애에겐 모유를 먹일 것 같아서이다.

그릇 씻는 소리가 그날따라 요란하게 들린다. PPFK